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대상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서성희¹ · 김수진²

광주여자대학교 간호학과¹,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²

The Effects of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for Preschoolers' Mothers

Seo, Seung Hee¹ · Kim, Soo Jin²

¹Department of Nursing,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²College of Nursing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ar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on self-esteem, congru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of the preschoolers' mothers. **Methods:**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and posttest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36 (experimental group 18, control group 18) preschoolers' mothers who volunteered from kindergartens and children's homes. The treatment for this study was based on Satir's systemic training program for parenting skills. Data were analyzed using percentage, χ^2 -test, t-test and t-test with SPSS 21.0 Version. **Results:** Statistically,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 congruenc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Findings suggested that parent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model can be used by preschoolers' mothers for effective psychiatric nursing interventions 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mental health promotion.

Key Words: Parental education, Communication, Competence, Conformity, Self-esteem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령전기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사회적 변화로 인해 자녀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1]. 학령전기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발달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기 시작하는 단계로 운동능력은 신체적 발달로 인해 향상되지만 아직 조절능력이 미숙하다[1]. 또한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여 활동제한에 대한 반항도 증가하며, 인지적으로 창조성과 함께 호기심이 증가하지만 상황 인식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부적응과 같은 문제행동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1,2]. 학령전기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 개인의 기질, 유전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유

주요어: 부모교육 프로그램, 의사소통, 유능감, 일치성, 자아존중감

Corresponding author: Kim, Soo Jin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ckseo-ro, Dong-gu, Gwangju 501-840, Korea.
Tel: +82-62-530-4951, Fax: +82-62-227-4009, E-mail: pinehillkim@naver.com

- This article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ate dissertation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Dec 8, 2015 | Revised: Dec 25, 2015 | Accepted: Dec 25, 201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아교육기관과 같은 환경요인 그리고 가정적인 요인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온 가정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육이다[1,2]. 이는 부모의 양육 형태가 아동의 성격 형성에 중요하고[1-3], 부모와의 동일시가 아동의 도덕성 근간인 초자아형성과 성정체감 형성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며[4,5], 특히 어머니의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5,6].

이와 같이 어머니가 아동의 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젊은 어머니들은 부모 역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7]. 이는 과도한 부모 역할 기대[7], 부모 역할의 사회, 문화적 변화, 부모교육의 부재, 양육 정보의 과잉과 선택의 어려움[7] 그리고 부모 역할은 연습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라는 점[2] 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양육에 대한 가치와 기대가 커서 양육 자체가 스트레스로 크게 작용하는 편이다[7]. 이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기간에 우울증 발병률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시기에 위험성이 가장 높고[8]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으며, 아동 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9]라는 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부모의 양육이 개인의 가정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개입과 지지 체계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들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문제행동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부정적인 양육 행동[5]과 아동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부모와 가족 대상 간호중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하고 있으나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건강관리는 미흡한 편이다[10].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적극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부모효율성훈련, 효율적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 등이 있으나[1,2,11]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민주적 자질과 문제해결능력 및 효과적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움을 주지만, 문제점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11]. 따라서 학령전기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머니 자신과 아동의 내면을 탐색하고 이해하며,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부모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의사소통 등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의 문화를 고려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

신간호중재방안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하다.

Satir는 경험주의 가족치료학과를 창시하여 독특한 경험적 치료방법을 연구하였으며,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은 가족 중심 사회에서 형성된 역기능적인 문제를 ‘상황’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개인 및 원가족과 상호작용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므로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부모교육모델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4,12]. 특히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은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모델로서, 단순한 변화(change)가 아닌 변형(transformation) 차원에서의 변화를 위해 빙산을 탐색하여 개인의 심리내면의 변화를 꾀한다. 또한 일차적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며, 미충족된 열망을 충족함으로 원가족 역동체계가 변하여 자기(self)가 성장하는 것을 치료목표로 한다[4,12,13].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은 개인의 성장이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성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성장 목표는 자아존중감과 일치성의 향상, 새롭고 나은 선택, 그리고 책임성이다[4]. 따라서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어머니는 빙산 탐색을 통해 자신의 열망을 충족하고, 자기를 만나 긍정적 에너지를 경험하므로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이러한 어머니의 변화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4,5]. 그리고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 빙산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 일치성이 향상되며[4-6], 일치적인 상태는 가장 자유롭고 적합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4] 자신과 타인 및 환경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4]. 그리고 어머니의 일치적인 의사소통은 부모로써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능력을 지각하게 하며 스스로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유능감이 향상된다[2,4,7].

또한 정신건강간호의 핵심은 간호사 자신을 치료적으로 이용하여 대상자와 가족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Peplau는 간호사가 내면의 감정, 지각, 기대 및 행동을 탐색하여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때 치료적으로 자신을 이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3]. 즉 간호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발견하여 자신을 수용하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일 때 대상자에게 자기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역기능적인 부분을 수정하도록 도울 수 있다[3].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또한 자존감이 높고 일치적인 치료자에 의해 대상자가 자신의 빙산체계를 탐색하여 영성차원의 자기와 접촉하게 되며 일치적이고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므로[4], 이 점이 정

신건강간호의 기본 가정과 일치한다.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에 관한 연구는 모델의 소개, 상담 사례를 통한 효과, 치료요인과 치료과정[13], 청소년 대상 Satir 모델기반 성장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14], 청소년 대상 Satir 모델기반 프로그램의 효과[14] 및 Satir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15-18]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나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간호사를 통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Satir 변형체계 치료모델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유능감, 일치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여 어머니와 아동의 정신건강증진과 건강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신간호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일치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3. 연구가설

- 가설 1.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높을 것이다.
- 가설 2.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일치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3.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
- 가설 4.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모유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4. 이론적 기틀

본 연구는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을 근거로 개념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에서 인간은 하나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우주의 체계일부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며 성장하려는 긍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본다[4]. 그리고 가족은 일반

체계론적 관점에서 상호작용하는 체계로서 존재하며 가족구성원 간 끊임없이 반응하는 과정을 지속하며 체계를 유지한다고 가정한다[4].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의 기본개념은 변화요인, 빙산(빙산메타포), 구체적 목표, 개인의 성장 및 가족의 성장이다[4,12,13].

첫째, 변화요인은 내담자를 다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은 일치적인 치료사를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간주한다[4]. 치료사의 일치적이고 유능하며 자존감이 높은 태도는 대사이자의 혼란을 건디고 지지하며 수용할 수 있게 하며[4], 대상자는 치료사의 일치적이고 지지적인 태도에 의해 뿌리를 내리고 통합되며 새로 선택한 것을 선택하고 연습하며 새로운 항상성을 형성할 수 있다[4]. 둘째, 빙산은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의 가장 특징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내면을 이해하는 은유이며 치료도구이다. 빙산은 외부로 표현되는 행동과 삶의 이야기를 나타내는 행동 차원과 감정, 지각, 기대 및 열망으로 이루어진 심리내적 차원 및 개인의 본질과 만나는 핵심과 근원을 이루는 자기(self)를 포함한 영적 차원으로 구분되지만 부분들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여 행동차원으로 나타난다[4,12-18]. 셋째, 구체적 목표는 대상자와 합의한 목표로 치료과정을 거친 후 도달하는 목표이며 변화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4]. 치료 작업의 각 회기는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세부치료목표가 있으며 세분화된 목표들이 달성되면 구체적 목표에 도달하며 더 나아가서 영성과 자기를 통합하여 치료의 궁극적 목표인 개인의 성장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4,13]. 넷째, 개인의 성장은 성장목표 또는 메타목표의 변화정도 측정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4]. 네 가지 성장목표는 자존감이 증진되며,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좀 더 책임질 수 있게 되며, 좀 더 일치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4,13]. 다섯째, 가족의 성장은 가족치료의 최종목표로써 가족체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변화에 일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구성원의 자기가 성장함으로서 가족의 성장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또한 가족구성원은 개체성을 존중받으며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고 더욱 성장하게 된다[4,13,14].

본 연구에서는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장목표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변화요인, 빙산 및 개인의 성장목표를 본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 목표와 가족의 성장목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Figure 1). 첫째, 변화요인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상자의 빙산탐색을 통해 건강한 부모역할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변화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열망을 충족하도록 도왔다. 연구자는 다양한 치료기법을 활용하여 빙산체계의 행동 차원, 심리내적 차원 및 영적 차원이 변화할 수 있도록 심리내적 체계와 원가족 체계 및 상호작용 체계를 다루었다. 둘째, 빙산은 개인 심리내면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4], 빙산일기, 가족조각, 명상 등을 활용하여 심리 내적 차원의 변화작업을 수행하였다. 셋째, 개인의 성장목표 중 ‘자존감’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4,13] 자아존중감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일치성’은 빙산내면의 일치를 이루어 어머니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고 개방적인 태도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4] 일치성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새로운 선택성’은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하여 행동차원으로 표현될 수 있게 하며 아동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하므로[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책임성’은 스스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의미하므로[4,7] 부모유능감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일치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 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학령전기 자녀의 어머니로,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직접 설명하였으며,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자 40명(실험군 20명, 대조군 2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대상자에게 인지적, 정서적 장애가 없으며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진단받은 자녀가 없는 자 이었다. 이중 임신과 자녀 입원으로 중도 탈락한 실험군 2명과 부적절한 사후 조사 응답으로 인한 대조군 2명 등 총 4명을 제외시켜 최종 대상자는 36명(실험군 18명, 대조군 18명)이었으며, 탈락률은 두 군 모두 10%였다. 대상자의 표본 크기는 G*Power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효과크기(d)=.80, 검정력($1-\beta$)=.75, 유의수준(α)=.05 (단측 검증)로 계산하여 두 개의 독립된 한 집단에 필요한 표본 수는 18명이었다.

3. 연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Jon[20]이 번역한 측정도구를 변안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신이 평가하는 자아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총 10문항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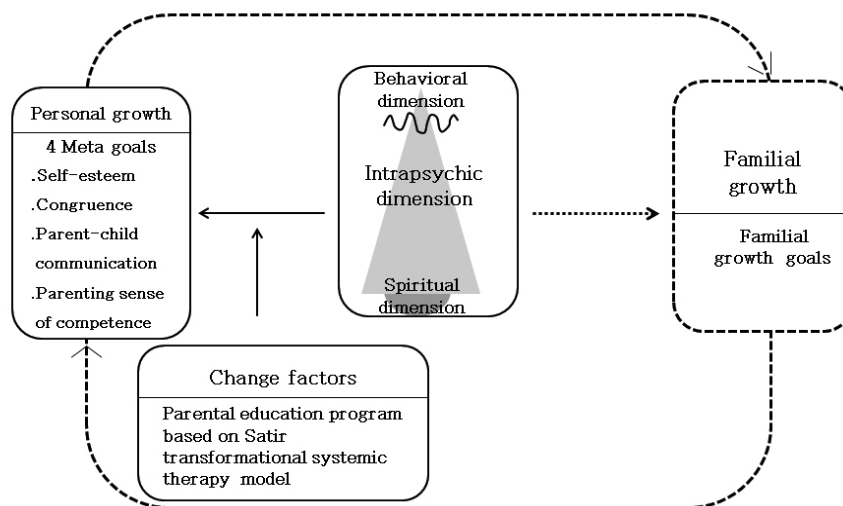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is study.

점 척도의 도구이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n[2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 일치성

일치성은 Ko와 Kim[21]이 Satir 성장모델을 기초로 개발한 일치성 척도를 개발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개인이 자기와 만나 감정, 생각, 기대, 열망이 조화를 이루며 온전히 기능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대인간 차원 일치성 8문항, 심리내적 차원 일치성 12문항, 영적 차원 일치성 10문항,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의 도구이다. 점수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α 값이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3)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Lee[22]가 개발한 어머니-자녀 의사소통 척도를 Sim[23]과 Park[24]이 수정, 보완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를 개발자와 수정보완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긍정성 정도와 부모의 무조건적 지시, 통제와 명령 등 부정적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하며, 긍정적 의사소통 15문항, 부정적 의사소통 5문항,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의 도구이다. 부정적 의사소통은 역산하였으며 총 의사소통 점수의 범위는 20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긍정적 의사소통은 .86, 부정적 의사소통은 .8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 .89와 .74이었으며 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89이었다.

4) 부모유능감

부모유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25]이 개발하고 Johnston과 Mash[26]이 17문항 중 1문항을 제외하고 부모효능감 7문항과 부모만족도 9문항으로 요인 분석하여 재구성하였으며 Kim과 Chung[7]이 변안한 부모유능감 척도를 변안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할 수 있으며 자녀와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낼 수 있다는 기대를 측정하며, 부모효능감 7문항, 부모만족감 9문항,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의 도구이다. 점수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유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Johnston & Mash[2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이 .7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5)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에서 Satir 성장모델을 적용하여 개발한 부모역할훈련 프로그램[12]을 기반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8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연구자는 Satir 변형체계치료학회 소속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에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Satir 가족치료전문가과정을 이수하여 Satir 가족치료전문상담사 2급, Satir 부모교육 강사와 의사소통 강사자격증을 취득하여 부모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램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준비단계에서는 연구자가 Satir 부모교육전문가로서 다양한 대상에게 부모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내용,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요구도 조사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기관장과 교사, 학령전기 어머니 16인 및 부모교육 전문가와 부모교육 강사 2인과의 포커스 인터뷰를 통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였다. 프로그램 구성단계에서는 '김영애 가족치료연구소'에서 보급한 '아름다운 사람 만들기: 사티어의 좋은 부모되기훈련 프로그램'[12], 문헌고찰과 요구도조사를 근거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예비연구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서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 9명을 편의표집하여 구성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확정단계에서는 예비연구단계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피드백 한 내용을 참고하여 Satir 부모교육 강사 1인, 유아교육 전문가 2인, 정신간호학 교수 1인 등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아 프로그램 내용, 방법 및 회기별 과제 등을 수정하여 최종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프로그램 각 회기 운영은 도입단계, 전개단계 및 마무리 단계를 거쳐 진행하였다. 도입단계는 명상과 과제수행의 경험을 나눔으로 편안하고 집중하여 참여하며 격려함으로 인식이 변화하도록 하였다. 전개단계는 각 주제에 대한 이론과 방법을 강의하고 실연함으로 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과 자녀, 가족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무리단계는 참여자들이 교육에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새롭게 알게 된 것, 발견한 자신과 자녀의 강점 및 새롭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등을 기록하였으며 과제를 부여하였다. 프로그램의 각 회기별 주제와 목표 및 구체적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1회기의 주제는 '마음열기'이며 목표는 '프로그램 이해, 친

밀감 형성'이었다. 내용은 프로그램 소개, 규칙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 자신과 자녀를 소개하였으며, 양육의 어려움을 나누었다. 2회기의 주제는 '부모역할이란?'이며 목표는 '나의 대처방식 자각하기, 나를 이해하기'이었다. 내용은 대처방식과 빙산메타포의 이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3회기의 주제는 '나와 가족 이해'이며 목표는 '부모역할의 걸림돌 확인하기, 걸림돌 제거하기'이었다. 가족조각을 하고 빙산일기작성을 통하여 심리내면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4회기의 주제는 '나와 자녀 이해'이며 목표는 '부모역할 걸림돌 제거하기, 나를 수용하기'이었다. 가족지도 작성하기는 나와 부모님을 이해하게 하였으며 초기기억의 빙산탐색은 어린 시절의 열망과 현재의 열망을 발견, 충족하는 방법과 강점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5회기의 주제는 '새로운 나'이며, 목표는 '새로운 시각으로 나와 가족 바라보기'이었다. 어린 시절의 심상작업과 부모님의 빙산탐색은 자신과 자녀, 부모님의 경험적 이해를 도왔다. 6회기의 주제는 '자녀의 어려움'이며 목표는 '자녀의 문제 해결능력 익히기, 부모로서의 자신감 갖기'이었다. 내용은 학령전기 아동의 문제 상황에 대한 역할극수행과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긍정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자녀의 자원을 탐색할 수 있게 하였다. 7회기의 주제는 '새로운 대화'이며 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습득하기'이었다. 내용은 의사소통 태도를 실연하고 경험을 나누었으며 의사소통 걸림돌의 탐색과 제거 작업을 하였다. 8회기의 주제는 '새로운 부모'이며, 목표는 '변화를 자각하고 자기를 긍정하기'이었다. 자신과 자녀의 변화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갖고 변화를 뿌리내리도록 자녀와 부모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였으며 추후 가족모임을 소개하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9월 10일부터 12월 14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사전 조사를 실시한 후, 총 8회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주 1회 S유치원과 M 어린이 집에 재원하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회 소요시간은 180분이었다. 프로그램 진행방법은 참석 가능한 요일에 따라 2개의 소집단(8명과 10명)으로 나누어서 연구자가 진행하였다. 사후 조사는 실험군은 8회기 프로그램 종료 4주 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보조자가 실시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중재 없이 실험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수의 정규성 검정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동질성 검증은 χ^2 -test, t-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가설검증은 t-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집단별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첨도와 왜도값을 살펴본 결과, 절대값이 왜도 3.0 이하이며 첨도 8.0 이하이므로 매우 큰 편포를 보이지 않고 2기 Q-Q도표에서 데이터들이 직선에 가까워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G광역시 C대학병원의 '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IRB No. 2013-125)을 받았다. 실험군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및 기간, 대상자의 역할과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된 동의서를 받음으로써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여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대조군에게는 연구종료 후 실험군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실시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증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연령이 34세 이상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77.8%였으며, 배우자의 연령은 40세 이상은 실험군 58.8%, 대조군 64.7%였다. 자녀수는 두 자녀가 실험군 66.7%, 대조군 55.6%였으며, 교육정도가 대졸은 실험군 61.1%, 대조군 88.9%였다. 직업을 가진 자는 실험군 55.6%, 대조군 61.1%였으며, 가구의 월평균 수입 300~600만원 미만은 실험군 66.1%, 대조군 66.7%였다. 부모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실험군 55.6%와 대조군 44.4%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험군 72.2%와 50.0%가 부모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적합한 기관으로 유치원/학교는 두 군 모두 72.2%가 응답하였다. 양육에 대한

Table 1. Parental Education Program

Session	Topic	Growth goals	Objectives	Technique	Contents
1	Mind opening	· Parent-child communication	· Understanding of program · Rapport formation	· Acceptance	· Structuring groups and forming relationship: introducing me, understanding program, setting the rules · Reviewing one's interpersonal relationship · Homework: setting a parenting role's goals
2	What's parenting?	· Parent-child communication	· Realizing of coping method · Understanding me	· Meditation · Iceberg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Setting a parental education goals · Lecture: coping methods, iceberg · Homework: exploring of origin family
3	Understanding me and my family	· Self-esteem · Congruence	· Removal of parenting obstacles	· Meditation · Family sculpting · Iceberg diary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Doing various family sculpting · Exploring of influence couple's relation to children · Understanding of writing a iceberg diary and drawing of family map · Homework: drawing of family map
4	Understanding me and child	· Self-esteem · Congruence	· Removal of parenting obstacles · Acceptance of positive me	· Meditation · Iceberg diary · Family map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Searching a positive resources of me · Writing a iceberg diary of my childhood memories and parent's · Understanding of preschooler's characteristics: lecture · Homework: writing a iceberg diary
5	New I	· Self-esteem · Congruence	· Reviewing me and my family	· Meditation · Imagery work · Iceberg diary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Understanding of preschooler's characteristics: imagery work · Exploring of yearn meeting method · Exploring of parent's iceberg at one's childhood · Homework: satisfying of own yearn
6	Child's problems	· Parent-child communication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 Learning child's problem solution · Having confidence as parents	· Meditation · Role play · Iceberg diary: satisfy of one's yearn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Handling of preschooler's problems: role play, exploring of child's iceberg · Watching a video and discussion: EBS "Mom changed" · Homework: satisfy of one's yearn
7	New communication	· Self-esteem · Parent-child communication	· Learning a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 Meditation · Role play: communication skills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Experiencing of communication attitudes · Working of communication obstacles · Watching a video and discussion: EBS "Mom changed" · Homework: doing and writing communication with child and own to improve self-esteem
8	New parents	· Self-esteem · Congruence · Parent-child communication ·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 Realizing of my change and affirmation	· Meditation · Role play: communication	· Meditation/ Sharing a homework · Evaluating of goals achievement · Writing and expressing appreciating messages · Introducing of family meeting · Homework: doing and writing communication with child and own to improve self-esteem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Groups

(N=36)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18) n (%)	Con. (n=18) n (%)	Total (N=36) n (%)	χ^2	p
Age (year)	≤ 34	4 (22.2)	4 (22.2)	8 (22.2)	0.00	1,000
	≥ 35	14 (77.8)	14 (77.8)	28 (77.8)		
Spouse's age	≤ 39	7 (41.2)	6 (35.3)	13 (38.2)	0.12	.724
	≥ 40	10 (58.8)	11 (64.7)	21 (61.8)		
Spouse	Have	17 (94.4)	17 (94.4)	34 (94.4)	0.00	1,000
	Have not	1 (5.6)	1 (5.6)	2 (5.6)		
Number of child	1	4 (22.2)	5 (27.8)	9 (25.0)	0.49*	.782
	2	12 (66.7)	10 (55.6)	22 (61.1)		
	3	2 (11.1)	3 (16.7)	5 (13.9)		
Education level	High school	1 (5.6)	0 (0.0)	1 (2.8)	3.92*	.140
	College	11 (61.1)	16 (88.9)	27 (75.0)		
	Postgraduate	6 (33.3)	2 (11.1)	8 (22.2)		
Job	Have	10 (55.6)	11 (61.1)	21 (58.3)	0.11	.735
	Have not	8 (44.4)	7 (38.9)	15 (41.7)		
Spouse's job	Product/sales	5 (29.4)	3 (17.6)	8 (23.5)	0.65*	.719
	Official/management	5 (29.4)	6 (35.3)	11 (32.4)		
	Others	7 (41.2)	8 (47.1)	15 (44.1)		
Experience of parent education	Yes	10 (55.6)	8 (44.4)	18 (50.0)	0.44	.505
	No	8 (44.4)	10 (55.6)	18 (50.0)		
Level of parent education necessity	High	13 (72.2)	9 (50.0)	22 (61.1)	1.87	.171
	Moderate	5 (27.8)	9 (50.0)	14 (38.9)		
Source of parent education	School	13 (72.2)	13 (72.2)	26 (72.2)	0.00	1,000
	Other	5 (27.8)	5 (27.8)	10 (27.8)		
Favorite parenting helper	Spouse	8 (44.4)	5 (27.8)	13 (36.1)	1.69*	.429
	Origin family	7 (38.9)	7 (38.9)	14 (38.9)		
	Neighbor	3 (16.7)	6 (33.3)	9 (25.0)		
Income (10,000 won)	< 300	3 (16.7)	4 (22.2)	7 (19.4)	0.85*	.652
	300~< 600	11 (66.1)	12 (66.7)	23 (63.9)		
	≥ 600	4 (22.2)	2 (11.1)	6 (16.7)		

*Fisher's exact test;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도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실험군은 남편 44.4%, 원가족 38.9%, 이웃 16.7% 순이었고, 대조군은 원가족 38.9%, 이웃 33.3%, 남편 27.8% 순이었다.

그리고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자아존중감($t=1.66, p=.105$), 일치성($t=0.26, p=.79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t=1.69, p=.099$) 및 부모유능감($t=1.52, p=.137$)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2. 가설검정

- 가설 1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Table 4).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7.5점에서 실시 후 31.7점으로 4.2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29.2점에서 실시 후 29.6점으로 0.3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자아존중감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0, p=.001$).

- 가설 2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일치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107.8점에서 실시 후 118.0점으로 10.1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109.0점에서 실시 후 108.3점으로 0.6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일치성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78, p=.009$).

- 가설 3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69.3점에서 실시 후 76.0점으로 5.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73.7점에서 실시 후 72.6점으로 1.1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41$, $p=.002$).
- 가설 4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부모유능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실험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51.3점에서 실시 후 56.6점으로 5.3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프로그램 실시 전 평균 55.0점에서 실시 후 54.5점으로 0.5점 감소되어 두 집단 간 부모유능감 점수의 증가량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0$, $p=.002$).

논 의

본 연구는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에게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일치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부모유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어머니의 정신건강증진과 건강한 부모 역할 수행을 돕는 정신간호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첫째, 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6] 자아존중감이 낮은 부모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3,4]. 특히 학령전기 아동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1,2] 어머니의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집단과 어머니 집단에게 성장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4].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아동과 상호작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4,13] 부모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동시에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25명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집단원들간의 불충분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지 않았

Table 3. Homogeneity Test of Dependent Variables between Two Groups

(N=36)

Variables	Exp. (n=18)	Cont. (n=18)	t	p
	M±SD	M±SD		
Self-esteem	27.5±3.45	29.2±2.46	1.66	.105
Congruence	107.8±14.60	109.0±11.34	0.26	.791
Parent-child communication	69.3±8.60	73.7±6.80	1.69	.099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51.3±7.72	55.0±6.94	1.52	.13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4. Effect of Parental Education Program between Two Groups

(N=36)

Variable	Groups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Self-esteem	Exp. (n=18)	27.5±3.45	31.7±3.02	4.2±3.47	3.80	.001
	Cont. (n=18)	29.2±2.46	29.6±3.01	0.3±2.50		
Congruence	Exp. (n=18)	107.8±14.60	118.0±12.98	10.1±10.74	2.78	.009
	Cont. (n=18)	109.0±11.34	108.3±15.88	0.6±12.54		
Parent-child communication	Exp. (n=18)	69.3±8.60	76.0±4.83	6.7±8.17	3.41	.002
	Cont. (n=18)	73.7±6.80	72.6±8.49	-1.1±5.30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Exp. (n=18)	51.3±7.71	56.6±5.40	5.3±6.68	3.30	.002
	Cont. (n=18)	55.0±6.94	54.5±7.11	0.5±3.57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으며[28],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시하여 집단원 수가 적절하고 충분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자아존중감에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자아존중감이 높아진 것은 매 회기마다 과제나누기를 통해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가족조각, 빙산탐색과 역할극을 통해서 자신과 자녀, 원가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제를 수행하며 대상자들은 새롭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 [4,13]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특히 일부 대상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녀양육이 부담스러워 죄책감을 느꼈었는데 교육을 마친 후에는 자신의 긍정적인 자원을 발견하였으며, 엄마인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양육의 부담감과 죄책감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상자가 자신을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열망이 충족되고 [4,12,13] 양육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던 부담감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일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성은 빙산체계의 각 부분에 존재하는 결림들을 제거하고 자기와 접촉함으로써 영적 차원의 변화를 초래한다[4,13]. 그리고 일치성이 높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서 자녀와의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신과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일치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4,13-1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성장부모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 자녀 부모집단과 어머니집단에게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치성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한 연구[14]가 있었으며, 독서치료를 병행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 어머니의 심리체계 변화를 일으켜서 일치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는 양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빙산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4,12,13], 자녀를 신뢰하고 개방적으로 관계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4,12,13].

본 프로그램에서 일치성이 증진된 것은 빙산일기쓰기를 통해서 꾸준히 빙산을 탐색하도록 하였고, 열망 충족을 위한 방법에 관한 과제를 통해서 자기와의 만남이 가능하였으며[4], 빙산체계의 대인간 차원, 심리내적 차원 및 영성 차원의 일치성 하위요인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가족지도와 가족조각, 심상작업과 명상과 같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원가족, 자녀 및 자신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가족 체계와 상호작용 체계를 변

화시켜 일치성을 향상시켰다. 일부 대상자들은 자녀에게 열망이 존재하는지 지금까지 알지 못했었는데 자녀의 빙산탐색을 통해 사랑받고 싶은 열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대상자의 인정의 열망을 충족하니 자녀를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열망이 충족되면 자녀의 사랑받고 싶은 열망을 충족시키고 수용할 수 있으며[4,12,13] 일치성이 향상되어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방식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삶의 방식이며 자존감의 수준을 나타내며 변화가 쉽지 않다[3,4]. 따라서 단순한 의사소통 기술습득이 아닌 심리내적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만 자녀와 긍정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1,3,4].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학령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독서치료를 병행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 의사소통 방식인 개방형 의사소통이 향상된 연구[17]가 있었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술치료를 활용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긍정적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연구[18]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빙산탐색과 다양한 기법들이 의사소통의 결림들을 제거하고 자기와 접촉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4,12,13]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다르게 부부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여성들은 빙산탐색을 통해 인식한 부정적인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출하게 되어 의사소통 향상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와 같이 의사소통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빙산을 탐색하여 자신을 수용하고 [12,14] 감정과 같은 심리체계의 결림들을 제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본 프로그램에서 의사소통이 향상된 것은 매회기마다 자신의 빙산을 이해하고 내면을 탐색하여 의사소통의 결림들을 제거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대상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던 방식이 현재 자녀의 감정표현을 받아주지 못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과 자녀의 감정도 수용하며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특히 대상자의 심리내면 체계의 변화는 행동차원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며[4,12-14] 억눌렀던 감정을 해결하고 인정받고 소통하고 싶은 열망을 스스로 충족하여[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의 부모유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유능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에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기대와 신념으로서,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태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7,26].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청소년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분노다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분노감정을 해결하여 부모유능감의 하위영역인 부모 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15]가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마다 과제나누기를 통해서 부모로서 실패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대상자들은 편안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자들이 아동과 자신의 긍정적 자원에 대하여 탐색하고 어머니로서 경험하는 감정을 수용하고 인식하며 양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치료적인 도구로 존재하기 위해 명상과 빙산탐색을 실시하여 자신을 수용하며 보다 일치적인 자세를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빙산을 탐색하고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여 대인간 차원, 심리내적 차원 및 영성차원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상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고 수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일치적인 상태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녀양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의 주요개념이 정신간호의 기본가정과 일치하므로 인본주의 간호이론의 실현과 대상자의 영성 및 간호사의 치료적 도구로서의 치료적 요인을 규명하는 간호실무 이론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교육자, 상담자, 격려자 및 간호사로서의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사회 정신간호 실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을 적용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실험군과 대조군의 부모역할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외의 치료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편의표집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양육에 어려움을 주는 아동의 특성 및 기질과 양육의 지지 체계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일 광역시 소재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대조군은 다른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실험군과 효과를 비교하였으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검정력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80%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발달주기에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성장목표와 구체적목표를 연구의 개념적 기틀에 포함시키고 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를 포함한 혼합 연구설계를 제안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를 대상으로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을 적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일치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부모유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일치성을 변화시켜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자신과 자녀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Satir 변형체계치료모델 적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학령전기 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며 부모역할 수행을 돕는 효과적인 정신간호중재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Lee SH, Min HY, Kwon HJ, Jung YJ, Han YJ, Choi YK, et al. Parent education. Seoul: Hakjisa; 2012. 75 p.
2. Kim JH, Jung JN, Jo YJ, Han JA. Parent education. Paju: Yangseowon; 2013. 412 p.
3. Lee JS, Kang MO, Ko KH, Ko MJ, Kong SJ, Kim SJ, et al.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Seoul: Hyunmoonsa; 2008. 748 p.
4. Kim YA. An integrative Satir transformational systemic therapy: theory and practice. Seoul: Institute of Kimyoungae Family Therapy; 2011. 342 p.
5. Yoo IY, Yoo HJ.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mothers of preschooler children. Child Health Nurs Res. 2010;16(2):112-9. <http://dx.doi.org/10.4094/jkachn.2010.16.2.112>
6. Jo ES, Seo JM.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mental health state.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10;19(1):

- 57-66. <http://dx.doi.org/10.12934/jkpmhn.2010.19.1.57>
7. Kim JI, Chung MJ.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seling-utilized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J Korean Home Econ Assoc.* 2006;44(7):53-62.
8. Huh BY, Han KJ. Father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aternal dep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2009;12(2):131-46.
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survey on status of child abuse. 2011. Available from: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
10. Kang EJ. Korea Children's mental health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Health-Welfare Policy Forum.* 2007;61-72.
11. Jo KR, Ham KA, Cheon SM. A meta-analysis on th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s. *Korean J Rehabil Psych.* 2013;20(2):371-6.
12. Kim YA. Making a beautiful people; satir's systemic training program for parenting skills. Seoul: Institute of Kimyoungae Family Therapy; 2005. 206 p.
13. Banmen J. The Satir model: yesterday and today. *Contemp Fam Ther.* 2002;24(1):7-22.
14. Kim MK. The effect of Satir model based growth and parent education program on the self-esteem and congruency of parents and adolescent children's self-esteem. *J Creative Personality with MeFOT.* 2014;3(1):161-83.
15. Lee KM, Lee IS. Anger management group therapy for parents: a Satir-based approach. *J Korean Fam Ther.* 2013;21(2): 231-55.
16. Lee DS. Effects of a Marital Growth Program on Middle-aged Couples. *J Korean Fam Ther.* 2008;16(1):81-111.
17. Kang YJ, Ku JG. The effectiveness of the bibliotherapy program for children's mothers influences on communication with their children and congruence. *J Korean Bibliother.* 2011; 4(1):25-44.
18. Lee DJ, Cho GP.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Satir model on mother's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elf-efficacy. *Korean J Art Ther.* 2013;20(2):379-407.
19.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Soci For.* 1965;44(2): 255. <http://dx.doi.org/10.2307/2575639>
20. Jon BJ.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J Yonsei.* 1974;11:107-30.
21. Ko MJ, Kim BH. Development and validity of the congruence scale based on Satir's growth model. *Korean J Coun Psy.* 2009;21(3):643-60.
22. Lee JS. A study the relationship of the family system and mother-child communications and the child's depression [master's thesis]. [Iksan]: Wonkwang University; 1993. p. 19-20.
23. Sim SK.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the self-concept of young children. *Kor J Child Stud.* 1996;17(2):47-59.
24. Park J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using emotion coaching on the self-efficacy of raising children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children [master's thesis]. [Suwon]: Gyonggi University; 2012. 39 p.
25. Gibaud-Wallston J, Wandersman LP.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ro, Canada; 1978.
26. Johnston C, Mash EJ.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 Consult Clin Psychol.* 1989;18:167-75.
27. Kline R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Lee HS, Kim SJ, Jon SH, translator. Seoul: Hakjisa; 2010. 81 p.
28. Song HS. An analysis on the process and effects of the Satir's family group counseling of high school girls. [dissertation]. [Iksan]: Wonkwang University; 2008. 93 p.